

脈經卷第二 三關脈主病과 奇經八脈病證에 對한 研究 (I)

林 東 局 · 朴 灵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Diseases of Three Divisions of the Pulse and the Symptoms of Diseases of Gi Kyoung Pal Maek(奇經八脈) of the Maek Kyoung(脈經) Vol. II (I)

Dong Kook Lim, Kyung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Maek Kyoung(Mai Jing, 脈經) is the first chinese specialized book of diagnostics written by Wang Hee(Wang xi, 王熙) from Seo Jin(xi jin, 西晉). He assortes the contents with pulse and medical examination from Nae Kyoung(nei jing, 內經), Nan Kyoung(nan jing, 難經), Sang Han Ron(shang han lun, 傷寒論) and Jung Jang Kyoung(zhong cang jing, 中藏經). And united with his own research, he explains medical examination and the way of talking the pulse by classifying into entrance and class.

Maek Kyoung(Mai Jing, 脈經) was imported Korea by Ji Chong(zhi cong, 知聰) AD 561, and he passed through Ko Ku Ryeo(gao gou li, 高句麗) with Nae Wei Jeon(nei wai dian, 內外典), Yak Seo(yao shu, 藥書), Myung Dang Do(ming tang tu, 明堂圖) and Maek Kyoung(Mai Jing, 脈經) to be naturalized in Japan.

This treatise make a special study of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It consists of the four chapters : Pyoung Sam Kwan Eum Yang E Sip Sa Ki Maek Je II(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Pyoung In Young Sin Mun Ki Ku Jeon Hu Maek Je E(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Pyoung Sam Kwan Byoung Hu Byoung Chi Eui Je Sam(平三關病侯并治宜第三), and Pyoung Gi Kyoung Pal Maek Byoung Je Sa(平奇經八脈病第四).

Bi Geup Choun Geum Yo Bang(備急千金要方) and Eui Hak Ip Mun(醫學入門) quoted from the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Maek Kyoung, and Bin Ho Maek Hak(瀕湖脈學), Gi Kyoung Pal Maek Go(奇經八脈攷) and Maek Eo(脈語) extracted from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and requoted from this contents.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have very valuable data like that, but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in the form of a treatise has not been yet in Korea. So I hope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develope Diagnostics by correc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fixing wrong translation.

Key Words: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Gi Kyoung Pal Maek

* 교신저자 : 임동국 / 소속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77-1 임동국한의원

Tel : 031-222-7331 / E-mail : honey-ice@hanmail.net

본 논문은 분량관계로 인하여 (I)편을 10-2권, (II)편을 11-1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I. 序 論

『脈經』은 3세기경 西晉의 王熙(字 叔和)가 漢代 이전의 『內經』, 『難經』, 『傷寒論』, 『中藏經』 등에서 脈學과 기타 診察에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모으고, 자신이 研究하여 터득한 것을 결합한 뒤 門과 類로 나누어 脈理와 기타 診察을 설명한 中國 最初의 診斷學 專門書이다.

『脈經』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서기 561년에 中國 吳나라 사람 知聰이 『內外典』, 『藥書』, 『明堂圖』, 『脈經』 등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彷化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¹⁾.

本 論文은 『脈經·卷第二』의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平三關病侯并治宜第三」, 「平奇經八脈病第四」를 研究한 것이다.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은 左右寸關尺三部에서 主宰하는 臟腑의 脈狀을 浮沈으로 나누어 虛實, 表裏關係, 痘證, 針刺穴位를 밝혔고,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는 左右寸關尺三部의 脈狀의 虛實로 12經이 主宰하는 臟腑의 寒熱虛實症候를 判斷하였고, 「平三關病侯并治宜第三」은 三部脈象으로 疾病의 表裏, 寒熱, 虛實을 診斷하고, 이에 따라 藥物의 治療, 針灸의 补瀉方法을 提示하였고, 아울러 飲食生活의 禁忌를 提示하였으며, 「平奇經八脈病第四」는 奇經八脈의 意義 및 內容과 奇經八脈의 起始點과 終點 및 그 痘證을 包括하여 說明하였다.

이상의 『脈經·卷第二』의 내용은 典據가 불분명하며, 第四의 奇經八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만이 『難經』에서 拔萃引用되었다.

『脈經』 제2권의 내용은 이후 종합서적인

『備急千金要方』에 臟腑別로 재편성되었고, 『醫學入門』에는 「臟腑六脈診法」에 再引用되었으며, 『瀕湖脈學』, 『奇經八脈考』, 『脈語』 등 각종 診斷學 文獻에 內容의 全文이나 要點을 拔萃하여 引用되고 있는 중요한 資料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1984년에 『脈經校釋』, 1991년에 『脈經校注』, 대만에서는 1995년에 『脈經新解』, 1999년에 『脈經精譯』 등의 研究가 있으나 견해가 다른 곳이 많고 古文·白話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워 國譯이 필요하며, 일본에서는 池也政一이 1991년(平成3년)에 訓譯한 『脈經訓譯』이 있으나 『脈經』의 趣旨が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羅의 論文²⁾이 있으나 池也政一의 『脈經訓譯』을 재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본 대학원 진단학교실은 2000년 成의 論文³⁾을 시작으로 『脈經』에 대하여 상세한 研究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본인도 이 연구의 일환으로 아래의 方法으로 研究하여 診斷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1. 本 研究의 原文은 『南宋何大任本』⁴⁾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用하였다.
2. 懸吐는 傳來의 方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한 篇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내용을 나누어 章名을 붙였다.

- 2) 羅敬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 3)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 4) 1981年 日本國 大阪에서 東洋醫學研究會에 의해 影印

1)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求堂, 서울, 1993, pp.29~31

4.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였다.
5.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으며, 玉篇, 字典, 辭典 등에서 引用한 註釋은 考察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公認된 내용이므로 脚注를 省略하였으며, 混用하는 쓰는 글자는 校勘을 생략하였다.
6.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로 校勘에는 ')', 註釋에는 '()'，引用文獻에는 '『』'，引用篇과 論文에는 「」로 表示하였다.

II. 研究內容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寸·關·尺의 陰陽 24氣의 脈象)

第 1 章 左寸口의 陰陽絕과 陰陽實脈

【原 文】

左手關前寸口에 陽絕⁽¹⁾者는 無小腸脉也니 苦
¹⁾⁽²⁾臍痺⁽³⁾와 小腹中에 有疝瘕⁽⁴⁾요 王月⁽³⁾⁽⁵⁾엔 王
 字를 一本엔 作五斗 卽冷上擔心⁽⁶⁾이라 刺手心主
 經⁽⁷⁾하니 治陰⁽⁸⁾하니 心主는 在掌後橫理⁽⁹⁾中⁽⁴⁾o
 斗 卽太陵⁽¹⁰⁾穴也斗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編著者	備考
1		脈經	何大任 校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錢本	錢熙祚 校	大孚書局, 臺南, 1985
3	華夏本	華夏本	蔣力生 校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4	大成本	大成本	張琨 等 校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5	中醫藥大	中醫藥大	吳承玉 等 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廣本	葉氏 校	元 葉氏廣勤書堂刻本, 脈經校釋 再引用
7		繆本	繆希雍 校	明 繆希雍本, 脈經校釋 再引用
8	脈經	朱本	朱錫穀 校	清 道光 13年 朱錫穀 原刊 脈經真本, 脈經校釋斗 脈經校注 再引用
9		黃本	黃鉉 校	清 道光 23年 黃鉉 校本, 脈經校釋斗 脈經校注 再引用
10		廖本	廖積性 校	清 道光 廖積性本, 脈經校釋 再引用
11		張本	張柯 校	清 咸豐 張柯 重刊 脈經真本, 脈經校釋 再引用
12		周本	周學海 校	清 光緒 17年 周學海 校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6
13		楊本	楊守敬 校	清 光緒 19年 楊守敬 刊本, 脈經校釋 再引用
14	王叔和脈經	文光本	校著未詳	文光圖書有限公司, 未詳
15		全錄本	陣夢電 等 編	圖書集成醫部全錄, 大成文化社 印影, 서울, 1986
16	脈經校釋	校釋	福州市人民醫院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7	脈經校注	校注	沈炎南 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18	脈經新解	新解	陳欽銘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板橋, 1995
19	脈經精譯	精譯	李家庚 等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20	難經校注	難經	凌耀星 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21	難經本義	本義	滑壽	集文書局, 台北, 1982
22	千金方	千金	孫思邈 (劉更生 等點校)	華夏出版社, 北京, 1996

左手關前寸口에 陽實⁽¹¹⁾者는 小腸實也니 苦心下急⁽¹²⁾痺⁽⁵⁾⁽¹³⁾하고 一作急痛이라 小腸에 有熱⁽⁶⁾하야 小便赤黃이라 刺手太陽經하야 治陽⁽¹⁴⁾하니 一作手少陽者는 非라 太陽은 在手小指外側本節陷中이라 卽後谿⁽¹⁵⁾穴也라

左手關前寸口에 陰絕⁽¹⁶⁾者는 無心脉也니 苦心下毒⁽¹⁷⁾痛⁽⁷⁾ 掌中熱 時時善嘔⁽¹⁸⁾ 口中傷爛⁽¹⁹⁾이라 刺手太陽經⁽⁸⁾하야 治陽이라

左手關前寸口에 陰實⁽²⁰⁾者는 心實也니 苦心下에 有水氣⁽²¹⁾하야 豪⁽²²⁾恚⁽²³⁾發之斗 刺手心主經하야 治陰이라

【校 勘】

1) 苦 ; 『千金』 卷第十四 「小腸脈論第一」에는 '若'으로 되어 있다.

2) 瘢痕 ; 『黃本』 · 『周本』 · 『校釋』에는 '癥瘕'로 되어 있다.

3) 王月 ; 『千金』에는 '主月'로 되어 있다.

4) 橫理中 ; 『千金』에는 '橫紋中入一分'으로 되어 있다.

5) 心下急痺 ; 『千金』에는 '心下急熱痺'로 되어 있다.

6) 小腸有熱 ; 『千金』에는 '小腸內熱'로 되어 있다.

7) 心下毒痛 ; 『千金』 卷第十三 「心臟脈論第一」에는 '心下熱痛'으로 되어 있다.

8) 刺手太陽經 ; 『千金』에는 '刺手少陽'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陽絕(양절) ; 浮取하였을 때 脈이 感應되지 않는 것이다⁵⁾.

5) “陽絕，陽爲浮取，絕爲不應。與下文‘陽實’相對而言。”

(2) 苦 ; 困也, 괴로울 고

(3) 膽痺(제비) ; 膽冷痺. 膽腹에 風 · 寒 · 濕邪가 侵入한 가운데 寒邪가 偏勝하므로 氣血이 막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膽腹에 疼痛의 정도가 비교적 극렬하며 寒氣를 만나면 더욱 심해지고 热氣를 만나면 감소한다⁶⁾.

(4) 瘢痕(산가) ; 瘢痕, 瘤. 小腹部에 열이 나면서 아프고 요도에서 백색의 점액이 흘러나오는 증상.

(5) 王月(왕월) ; 心 · 小腸의 火氣가 왕성한 여름 삼 개월을 가리킨다⁷⁾. * 王 ; 盛也, 왕성할 왕

(6) 搶心(창심) ; 衝心. 病氣가 가슴으로 치미는 것. * 搶 ; 猶刺, 찌를 창

(7) 手心主經(수심주경) ; 『靈樞 · 經脈』의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을 후세에 편의에 따라 '手心主經'이라고도 하고, '手厥陰心包經'이라고도 略稱하였다.

(8) 治陰(치음) ; 陰經의 穴位에 刺鍼하는 것이다⁸⁾.

(9) 理 ; 文也, 무늬 리

(10) 太陵(태릉) ; 大陵. 手厥陰心包經의 穴로, 손바닥을 꾸었을 때 手根關節橫紋의 중간 위치인 長掌腱과 橋側手根屈腱 사이에 있다.

(11) 陽實(양실) ; 浮取하였을 때 脈이 堅實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⁹⁾.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49

6) 朴 炳; 診斷學權輿, 대성의학사, 서울, 2000, p.260

7) “王月”，此指夏令三月。據本書卷三述，肝膽王春三月，心小腸王夏三月，肺大腸王秋三月，腎膀胱王冬三月，脾胃王季夏六月。此處論小腸病，故此處指‘王月’是指夏令三個月份。王，通‘旺’。”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3

8) “治陰”，此指針刺取陰經的穴位。下文‘治陰’同此。” 上揭書; 面同

9) “陽實”，此脈浮取堅實有力。” 上揭書; 面同

- (12) 急 ; 迫也, 캥길 급
- (13) 痢 ; 局部感覺喪失, 뻣뻣할 비
- (14) 治陽(치양) ; 陽經의 穴位에 刺鍼하는 것이다¹⁰⁾.
- (15) 後谿(후계) ; 手太陽小腸經의 穴로,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第5中指節關節의 後方 外側에 있는 橫紋의 先端에 있다.
- (16) 陰絕(음절) ; 沈取하였을 때 脈이 感應되지 않는 것이다.
- (17) 毒 ; 深害漸毒, 몹시 독할 독
- (18) 嘘(구) ; 구토할 때에 소리는 나면서 胃의 내용물을 나오지 않는 증상.
- (19) 口中傷爛(구중상란) ; 口糜. 口腔內에 白色의 潰爛된 부위가 생겨서 매우 아프며 음식을 먹기 곤란한 증상.
- (20) 陰實(음실) ; 沈取하였을 때 脈이 堅實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¹¹⁾.
- (21) 心下有水氣(심하유수기) ; 心下水氣. 脾胃의 陽이 損傷되고 運化機能이 저하되어 水飲이 中焦에 정체되므로 胃脘부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차 오르는 느낌이 발생하는 증상이다.
- (22) 憂 ; 愁也, 근심할 우
- (23) 患 ; 恨怒, 성낼 애

【國 譯】

원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小腸脈이 없는 것이니, 膽腹의 冷痺와 小腹中에 痘瘍가 있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火氣가 旺盛한 달이 되면 王字가 어떤 本에는 五로 되어 있다. 冷氣가 가슴으로 치밀어 오른다. 手厥陰經을 刺鍼하여 陰經을 치료하니, 手厥陰經의 治療穴은

10) “治陽”，此指針刺取陽經的穴位。下文“治陽”同此。
上揭書；面同

11) “陰實”，此脈沈取堅實有力。下文“陰實”同此。
上揭書；面同

손바닥 뒤의 橫紋 가운데 있다. 즉 大陵穴이다.

원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小腸이 實한 것이니, 心下가 당기고 뻣뻣하며 어떤 곳에서는 急痛이라고 되어 있다. 小腸에 热이 있어서 小便이 赤黃色이 되는 것으로 괴로워 한다. 手太陽經을 刺針해서 陽經을 치료하니, 어떤 곳에 手少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手太陽經의 治療穴은 새끼손가락의 바깥쪽 本節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 즉 後谿穴이다.

원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心脈이 없는 것이니, 心下의 심한 통증과 손바닥에 热이 나는 것, 때때로 발작하는 嘘吐, 口中傷爛으로 괴로워 한다. 手太陽經을 刺針해서 陽經을 치료한다.

원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心이 實한 것이니, 心下에 水氣가 있어 근심과 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괴로워 한다. 手厥陰經을 刺針하여 陰經을 치료한다.

【考 察】

本篇과 다음 편에 ‘陽絕’과 ‘陽實’, ‘陰絕’, ‘陰實’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陽’은 浮取하는 것¹²⁾을, ‘陰’은 沈取하는 것¹³⁾을 가리킨다.

‘絕’의 의미에 대해 絶이 脈氣가 을 때 박동에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며 脈이 단절되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¹⁴⁾와 脈이 전혀 感應되지

12) “陽爲浮取。”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49

“陽, 指浮取之脈。”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3

13) “陰, 指沈取之脈。”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3

14) “絶是指脈來搏動乏力，應指不足，并非是脉絕不至，主正氣虛衰。所謂‘無××脉也’是指該臟腑之氣虛衰而

않는 것이라는 견해¹⁵⁾가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實은 ‘陽實者 小腸實也’라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絶은 ‘陽絕者 無小腸脉也’라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어 脈의 상태를 직접 거론하고 있고, 뒤 章에서 兩手의 寸關尺 六部의 脈에 대해 설명하면서 實脈에 대한 상대로 虛脈이 직접 등장하며, 『脈經』의 24脈 중에 絶脈이 나오지 않지만 『入門』의 「諸脈體狀」에 “絶脈은 맥박이 전혀 없어서 推法을 써 봐도 고요하니 脈狀이 나타나지 않는다(絕卽全無推亦閑)¹⁶⁾.”고 한 것에 근거하면 絶은 脉氣가 을 때 전혀 感應되는 않는다는 견해가 옳다. 따라서 陽絶은 浮取했을 때 脈狀이 감응되지 않는 것을, 陰絶은 沈取했을 때 脈狀이 감응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實은 脉氣가 을 때 堅實하고 힘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¹⁷⁾. 따라서 陽實은 浮取하였을 때 脈이 堅실하고 힘이 있는 것을, 陰實은 沈取하였을 때 堅실하고 힘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左手關前寸口 陽絶者”와 “左手關前寸口 陰實者”에서의 左手關前寸口는 心에 배속된 부위이므로 당연히 手少陰心經을 刺針하여 치료해야 하지만 手心主經에 刺鍼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는 『靈樞·邪客』¹⁸⁾에서 말한 바와 같이 心은

言. 實是指脈來堅實有力, 主相應臟腑之實證.”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3

15) “絶爲不應.”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49

“絶爲斷竭不應也.”

陳欽銘; 脈經新解, 國立中國醫藥研究所, 台北, 民國84년, p.86

16) 朴 炳; 診斷學權輿, 대성의학사, 서울, 2000, p.170

17) “實是指脈來堅實有力, 主相應臟腑之實證.”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3

18) “黃帝曰：手少陰之脈，獨無俞，何也？岐伯曰：少

君主之官으로 心 자체가 병들면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 죽기 때문에 눈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외의 병들은 心包가 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手心主經을 택하여 치료한 것이다.

第2章 左關上의 陰陽絶과 陰陽實脈

【原 文】

左手關上에 陽絶자는 無膽脉也니 苦膝疼 口中苦 目末 ⁽¹⁾目 善畏如見鬼狀⁽¹⁾ 多驚 少力이라
刺足厥陰經하야 治陰하니 在足大指間 卽行間⁽²⁾
穴也라 或刺三毛⁽³⁾中이라

左手關上에 陽實자는 膽實也니 苦腹中實不安⁽²⁾
身軀習習⁽⁴⁾也라 刺足少陽經하야 治陽하니 在足上第二指本節後一寸⁽³⁾이라 第二指는 當云小指次
指니 卽臨泣⁽⁵⁾穴也라

左手關上에 陰絶자는 無肝脉也니 苦瘧⁽⁶⁾遺溺⁽⁷⁾
難言과 脇下에 有邪氣하야 善吐⁽⁸⁾라 刺足少陽經
하야 治陽이라

左手關上에 陰實자는 肝實也니 苦肉中痛 動善轉筋⁽⁹⁾이라 刺足厥陰經하야 治陰이라

【校勘】

1) 善畏如見鬼狀 ; 『千金』 卷第十二 「膽腑脈論第一」에는 ‘善畏如見鬼’로 되어 있다.

2) 苦腹中實不安 ; 『千金』에는 ‘苦腹中不安’으로 되어 있다.

3) 在足上第二指本節後一寸 ; 『千金』에는

陰, 心脈也.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 其臟堅固, 邪弗能客也. 客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俞焉.”

楊維傑 編;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pp.494~495

‘在足上第二指本節後一寸是’로 되어 있다.

4) 動善轉筋 ; 『千金』 卷第十一 「肝臟脈論第一」에는 ‘動善轉筋吐’로 되어 있다.

【註 釋】

- (1) 昧 ; 目不明也, 눈 어두울 때
- (2) 行間(행간) ; 足厥陰肝經의 穴로, 발등의 첫 째와 둘째 발가락이 갈라진 사이에서 뒤로 0.5寸되는 곳에 있다.
- (3) 三毛(삼모) ; 聚毛. 엄지발가락발톱 뒤의 피부에 난 털을 말한다.
- (4) 習習(습습) ;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움직여 불안한 모양¹⁹⁾. * 習 ; 重也, 거듭 습
- (5) 臨泣(임읍) ; 足少陽膽經의 穴로, 발등의 第4中足骨과 第5中足骨의 接合部 앞쪽에 있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있다.
- (6) 瘰(읍) ; 瘰과 같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며 下腹部가 서서히 脹滿하는 것을 ‘癃’,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병세가 급한 것을 ‘閉’라 하나 현재는 小便이 아주 적게 나오는 것 및 小便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瘰閉라 한다.
- (7) 遺溺(유뇨) ; 小便失禁. 깨어 있을 때 小便이 나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小便頻數하고 자제하기 어려운 증상.
- (8) 吐(토) ; 구토할 때에 소리 없이 胃의 내용물만 나오는 증상.
- (9) 轉筋(전근) ; 抽筋. 肢體의 筋脈이 땅기면서 痙攣이 일어나며, 마치 비트는 것처럼 아픈 증상. 보통 쥐가 난다고 한다.

19) “習習”, 躊動不安貌.”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34

【國 譯】

원손의 關上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膽脈이 없는 것이니, 무릎이 아프고 입이 쓰며 눈이 어둡고 귀신을 본 것처럼 잘 두려워하고 자주 놀라며 기운이 없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厥陰經을 刺針하여 險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엄지발가락의 사이를 刺鍼하기도 하고 즉 行間穴이다. 혹은 三毛中을 刺鍼한다.

원손의 關上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膽이 實한 것이니, 뱃속이 단단하여 편치 않고 몸이 躥動하면서 불안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少陽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발등에서 둘째 발가락 本節 뒤쪽 1寸에 있다. 第二趾는 당연히 小趾次趾를 말하는 것이니 즉 臨泣穴이다.

원손의 關上에서 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肝脈이 없는 것이니, 瘰閉 · 遺溺 · 難語와 脇下에 邪氣가 있어 자주 吐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少陽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治療한다.

원손의 關上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肝이 實한 것이니, 살이 아프고 움직일 때 쥐가 잘 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厥陰經을 刺針하여 險經을 치료한다.

第3章 左尺中의 險陽絕과 險陽實脈

【原 文】

左手關後尺中에 陽絕者는 無膀胱脉也니 苦逆冷⁽¹⁾하고 婦人은 月使不調⁽²⁾라가 王月⁽³⁾則閉⁽⁴⁾하고 男子는 失精⁽⁵⁾ 尿有餘瀝⁽⁶⁾이라 刺足少陰經 하야 治陰하니 在足內踝下動脉⁽³⁾이라 卽太谿⁽⁷⁾穴也라

左手關後尺中에 陽實者는 膀胱實也니 苦逆冷⁽¹⁾과 脇下에 有邪氣⁽⁴⁾하야 相引痛이라 刺足太陽經 하야 治陽하니 在足小指外側本節後陷中이라 卽

束骨⁽⁸⁾穴也라

左手關後尺中에 隱絕者는 無腎脉也니 苦足下熱 兩髀⁽⁹⁾裏急하니 精氣⁽¹⁰⁾竭少로 勞倦⁽¹¹⁾所致라
刺足太陽經하야 治陽이라

左手關後尺中에 隱實者는 腎實也니 苦恍惚⁽¹²⁾
健忘 目視眊眊⁽¹³⁾ 耳聾⁽¹⁴⁾悵悵⁽¹⁵⁾ 善鳴⁽¹⁶⁾이라 刺
足少陰經하야 治陰이라

【校勘】

- 1) 苦逆冷 ; 『千金』 卷二十 「膀胱腑脈論第一」에는 '病苦逆冷'으로 되어 있다.
- 2) 王月 ; 『千金』에는 '三月'로 되어 있다.
- 3) 在足內踝下動脈 ; 『千金』에는 '在足內踝下動脈是也'로 되어 있다.
- 4) 脇下有邪氣 ; 『千金』에는 '脇下邪氣'로 되어 있다.

【註釋】

- (1) 逆冷(역랭) ; 厥冷, 四肢逆冷, 四肢厥冷. 손발끝에서부터 차츰 싸늘해져 올라오는 증상.
- (2) 月使不調(월사부조) ; 月經不調. 일반적으로 生理障礙를 통틀어 하는 말. 月經不調는 月經先期, 月經後期, 月經先後無定期, 月經過多, 月經過少, 經閉, 崩漏, 經行吐衄, 經行便血 등 生理週期와 量에서의 異常, 生理 때 隨伴症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때로 生理週期異常만을 月經不調라고 한다.

(3) 王月(왕월) ; 腎·膀胱의 水氣가 王성한 겨울 삼 개월을 가리킨다.

(4) 閉(폐) ; 經閉. 여자의 연령이 18세가 넘었는데도 月經이 오지 않거나, 혹은 월경이 있다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오지 않는 것.

(5) 失精(실정) ; 滑泄, 遺精. 성교하지 않는 데도 精液이 흘러나오는 증상.

(6) 餘瀝(여력) ; 殘尿. 小便을 다 눈 뒤에 小便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

(7) 太谿(태계) ; 足少陰腎經의 穴로, 內踝尖과 跟腱을 연결한 수평선의 중점에 있다.

(8) 束骨(속골) ;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足跗外側으로 第5跖骨小頭 뒤쪽의 赤白肉際에 있다.

(9) 髓；股骨，넓적다리뼈 비

(10) 精氣(정기) ;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精微物質 및 그 기능을 가리킨다.

(11) 勞倦(노倦) ; '勞'는 勞損을, '倦'은 倦怠를 뜻하며, 주로 五勞로 인한 손상이나 房事過度로 인한 腎精의 虧損을 말한다.

(12) 恍惚(황흘) ; 정신이 불안정하고 혼란하여 주관이 없는 것.

(13) 眇眊(황황) ;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것. * 眇；目不明也, 눈 어두울 황

(14) 耳聾(이통) ;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症狀, 즉 難聽을 말한다.

(15) 慵悵(창창) ; 실망한 모양.

(16) 鳴(명) ; 耳鳴. 귓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

【國譯】

원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膀胱脈이 없는 것이니, 四肢逆冷으로 級로 위하고 婦人은 月經이 고르지 못하다가 寒氣가旺盛한 달이 되면 經閉가 되며, 男子는 失精과 소변 후 殘尿로 級로 위한다. 足少陰經을 刺針하여 隱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足內踝 아래의 脈이搏動하는 곳에 있다. 즉 太谿穴이다.

원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膀胱이 實한 것이니, 四肢逆冷과 脇下에 邪氣가 있어 서로 당기면서 아픈 것으로 級로 위한다. 足太陽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足小趾 外側 本節의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

즉 束骨穴이다.

원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腎脈이 없는 것이니, 足心熱과 양쪽 大腿部 안쪽이 당기는 것으로 괴로워하니 精氣가 없어진 것으로 그 원인은 痞倦때문이다. 足太陽經을 刺鍼하여 陽經을 치료한다.

원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腎이 實한 것이니, 精神異常과 健忘,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고 耳聾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자주 귀 우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少陰經을 刺針하여 陰經을 치료한다.

第 4 章 右寸口의 陰陽絕과 陰陽實脈

【原 文】

右手關前寸口에 陽絕者는 無大腸脉也니 苦少氣⁽¹⁾ 心下有水氣하고 立秋節⁽²⁾即欬斗 刺手太陰經 하야 治陰하니 在魚際間이라 即太淵⁽³⁾穴也라

右手關前寸口에 陽實者는 大腸實也니 苦腸中切痛이 如錐⁽⁴⁾刀所刺⁽¹⁾가 無休息時라 刺手陽明經 하야 治陽하니 在手腕中⁽²⁾이라 即陽谿⁽⁵⁾穴也라

右手關前寸口에 陰絕者는 無肺脉也니 苦短氣⁽⁶⁾ 欽逆⁽⁷⁾하고 喉中塞 憶逆⁽⁸⁾이라 刺手陽明經 하야 治陽이라

右手關前寸口에 陰實者는 肺實也니 苦少氣와 胸中滿彭彭⁽⁹⁾이 與肩相引이라 刺手太陰經 하야 治陰이라

【校 勘】

1) 如錐刀所刺 ; 『千金』 卷十八 「大腸腑脈論第一」에는 '如針刀所刺'로 되어 있다.

2) 在手腕中 ; 『千金』에는 '在手腕中 積之'로 되어 있다.

【註 釋】

(1) 少氣(소기) ; 호흡이 미약하고 짧으며 말소리에 힘이 없는 것.

(2) 立秋節(입추절) : 24節氣 중의 하나. 태양의 황경이 135°되는 때인데, 양력은 8월 8일이나 9일경, 음력은 7월 초순으로, 가을이 시작되어 서늘한 바람이 분다.

(3) 太淵(태연) ; 手太陰肺經의 穴로, 손바닥을 위로 뒤집었을 때 手根橫紋橈側의 핵물부에 있다.

(4) 錐 ; 銳器, 송곳 추

(5) 陽谿(양계) ; 手陽明大腸經의 穴로, 拇指를 橈側으로 벌렸을 때 短拇指伸筋腱과 長拇指伸筋腱 사이에 생기는 핵물부에 있다.

(6) 短氣(단기) ; 呼吸이 빠르고 出入하는 氣가 急迫하여 吸氣와 呼氣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 喘息과 비슷하나 어깨를 들먹이지 않고 호흡에 걸림과 痰이 끓는 소리가 없는 증상.

(7) 欽逆(해역) ; 欽逆上氣. 기침을 하면서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것으로 咳嗽와 喘息이 함께 나타나는 병증.

(8) 憶逆(희역) : 嘘氣, 憶氣. 트림.

(9) 彭彭(방방) ; 가득하고 왕성한 모양. * 彭 ; 盛也, 성할 방

【國 譯】

오른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大腸脈이 없는 것이니, 少氣와 心下의 水氣停滯로 괴로워하는데 가을이 되면 기침을 하게 된다. 手太陰經을 刺針하여 陰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魚際의 사이에 있다. 즉 太淵穴이다.

오른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大腸이 實한 것이니, 腸이 끓어지듯 아픈 것이 송곳이나 칼로 찌르는 듯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手陽明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손목에 있다. 즉 陽谿穴이다.

오른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肺脈이 없는 것이니, 短氣와 咳逆, 喉中이 막힌 듯 답답한 것, 트림으로 괴로워한다. 手陽明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한다.

오른손의 關部 앞인 寸口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肺가 實한 것이니, 少氣와 가슴이 매우 그득하면서 어깨와 서로 당겨지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手太陰經을 刺針하여 陰經을 치료한다.

第 5 章 右關上의 陰陽絕과 陰陽實脈

【原 文】

右手關上에 陽絕者는 無胃脉也니 苦香酸⁽¹⁾ 頭痛 胃中有冷이라 刺足太陰經하야 治陰하니 在足大指本節後一寸이라 卽公孫⁽²⁾穴也라

右手關上에 陽實者는 胃實也니 苦腸中伏伏⁽³⁾ 一作幅幅이라 不思食物⁽¹⁾하고 得食不能消斗 刺足陽明經하야 治陽하니 在足上動脈이라 卽衝陽⁽⁴⁾穴也라

右手關上에 陰絕者는 無脾脉也니 苦少氣 下利⁽⁵⁾ 腹滿⁽⁶⁾ 身重 四臍⁽⁷⁾不欲動 善嘔斗 刺足陽明經하야 治陽이라

右手關上에 陰實者는 脾實也니 苦腸中伏伏如堅狀 大便難이라 刺足太陰經하야 治陰이라

【校 勘】

1) 不思食物 ; 『校釋』에는 '不思飲食'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吞酸(탄산) ; 咽酸. 胃口의 신물이 목구멍으로 올라와 \
吐出되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며 속이 쓰

려 마치 신 것을 삼킨 듯한 증상.

(2) 公孫(공손) ; 足太陰脾經의 穴로, 足內側 第1中足骨 基底部의 前緣에 있는 赤白肉際 부위에 있다.

(3) 伏伏(복복) ; 은근하게 막혀 있는 것을 말한다.²⁰⁾ * 伏 ; 藏也, 숨길 복

(4) 衝陽(충양) ; 足陽明胃經의 穴로, 발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解溪穴에서 1.5寸 아래, 第2·3跖骨과 楔狀骨 사이의 오목한 곳에 있다.

(5) 下利(하리) ; 고대 醫書에서 痢疾과 泄瀉를 합해서 부르던 말.

(6) 腹滿(복만) ; 배가 脹滿한 증상.

(7) 脍 ; 手足, 사지 지

【國 譯】

오른손의 關上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胃脈이 없는 것이니, 吞酸과 頭痛, 胃 속이 한랭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太陰經을 刺針하여 陰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足大趾 本節 뒤쪽 1寸되는 곳에 있다. 즉 公孫穴이다.

오른손의 關上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胃가 實한 것이니, 腸 속이 은근하게 막힌 듯 하고 음식 생각이 없으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陽明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하니, 治療穴은 발등의 동맥에 있다. 즉 衝陽穴이다.

오른손의 關上에서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脾脈이 없는 것이니, 少氣와 下利, 腹滿,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힘이 없어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자주 \
吐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陽明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한다.

오른손의 關上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脾가

20) “伏, 匽存. 伏伏, 猶言有所隱阻.”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52

實한 것이니, 腸 속이 단단한 것으로 막혀 있는 듯 한 것과 便秘로 괴로워한다. 足太陰經을 刺針하여 隱經을 치료한다.

第 6 章 右尺中의 隱陽絕과 隱陽實脈

【原 文】

右手關後尺中에 陽絕자는 無子戶⁽¹⁾脉也니 苦足逆寒⁽²⁾ 絶產⁽²⁾ 帶下⁽³⁾ 無子 陰中寒⁽⁴⁾이라 刺足少陰經하야 治陰이라

右手關後尺中에 陽實자는 膀胱實也니 苦少腹滿⁽⁵⁾ 引腰痛⁽²⁾이라 刺足太陽經하야 治陽이라

右手關後尺中에 陰絕자는 無腎脉也니 苦足逆冷하고 上擔胸痛하야 夢入水見鬼하고 善厭寐⁽³⁾⁽⁶⁾에 黑色物이 來掩⁽⁷⁾人上이라 刺足太陽經하야 治陽이라

右手關後尺中에 陰實자는 腎實也니 苦骨疼 腰脊痛 內寒熱이라 刺足少陰經하야 治陰이라

右는 脈二十四氣事⁽⁴⁾니라

【校 勘】

1) 苦足逆寒 ; 『千金』 卷二十 「膀胱脈論第一」에는 ‘病苦足逆寒’으로 되어 있다.

2) 苦少腹滿引腰痛 ; 『千金』에는 ‘病苦少腹滿腰痛’으로 되어 있다.

3) 善厭寐 ; 『千金』 卷十九 「第一」에는 ‘善厭寐’로 되어 있다.

4) 脈二十四氣事 ; 『校釋』에는 ‘陰陽二十四氣脈證’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子戶(자호) ; 子戶는 일반적으로 부인의 前陰 또는 子宮을 가리키거나 穴名이 되는데, 여기

에서는 右腎 즉 命門을 가리킨다.

(2) 絶產(절산) ; 몸에 병이 있어 終身妊娠을 하지 못하는 것.

(3) 帶下(대하) ; 婦女의 隱道에서 흘러나오는 끈끈하고 미끄러운 액체인데, 마치 떼를 떤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므로 ‘帶下’라고 한다.

(4) 陰中寒(음중한) ; 陰冷. 남자의 경우 陰莖과 陰囊이 차갑고, 婦人은 陰中이 寒冷하며 항상 뱃속이 찬 것을 겪는다.

(5) 少腹滿(소복만) ; 아랫배가 그득한 증상.

(6) 厭寐(염매) ; 수면시의 惡夢을 말한다²¹⁾.

厭 ; 惡夢, 가위눌릴 염

(7) 掩 ; 乘其不備而覆之, 불의에 습격할 염

【國 譯】

오른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浮部位가 단절된 것은 子戶脈이 없는 것이니, 足逆寒과 絶產, 帶下, 無子, 陰冷으로 괴로워한다. 足少陰經을 刺針하여 隱經을 치료한다.

오른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膀胱이 實한 것이니, 小腹이 그득하면서 腰部까지 당기고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太陽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한다.

오른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서沈部位가 단절된 것은 腎脈이 없는 것이니, 足部가 逆冷하고 冷氣가 치밀어 오르며 물에 빠지거나 귀신을 보는 꿈을 꾸고, 검은 물체가 자신을 덮는 악몽을 자주 꾸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太陽經을 刺針하여 陽經을 치료한다.

오른손의 關部 뒤인 尺中에沈部位가 實한 것은 腎이 實한 것이니, 骨痛과 腰脊痛, 腹內에서 寒熱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足少陰經을 刺針하

21) “厭寐, 謂睡時惡夢.”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53

여 隱經을 치료한다.

이상은 脈의 24氣로 인한 질병이다.

【考 察】

子戶에 대하여 吳昆은 “子戶는 命門이고, 右腎이 命門이며, 男子는 精을 간직하고, 女子는 胞가 매여 있으므로 子戶인 것이다(子戶命門也, 右腎爲命門,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爲子戶)22).” 고 하여 子戶가 命門이라고 하면서 왜 子戶라 부르는가에 대하여도 『難經·第十八難』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子戶는 命門에 속하므로 여기에서는 命門의 代稱으로 쓰인 것이다.

本篇에서 1章과 4章에서 ‘左寸口’와 ‘右寸口’라고 하지 않고 ‘左手關前寸口’와 ‘右手關前寸口’라고 하고, 3章과 6章에서 ‘左尺中’과 ‘右尺中’이라고 하지 않고 ‘左手關後尺中’과 ‘右手關後尺中’이라고 하여 關部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診脈할 때 掌後 高骨부위의 關을 기준으로 하여 寸과 尺을 배열하기 때문이다²³⁾.

本篇에서 浮나沈部位에서 脈이 단절되었을 때는 그 해당 臟腑와 서로 表裏가 되는 臟腑의 經絡을 선택해서 刺針하고, 脈이 實할 때는 그 해당 臟腑에 직접 刺鍼한다. 일반적으로 實證일 때는 經絡을 막고 있는 邪氣를 그 經絡에 직접 刺鍼하여 邪氣를 穷하면 된다. 그러나 脈이 단절되었을 때는 痘證이 발생한 臟腑와 表裏가 되는 臟腑의 經絡을 선택하는데, 이는 鍼法은 기본적으로 穷하는 작용만 있으므로²⁴⁾ 아무리 補法을 사용하더라도

22) 朴 炙 譯釋; 譯釋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p.54~55

23) “凡診脈初, 以中指揣按高骨關位, 次下前後二指, 人長則踈排其指, 人短則密排其指, 初輕按消息之, 次不輕不重中按消息之, 次重按消息之.”
李 楠 編註醫學入門,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61

도 그 經絡을 더 虛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人迎·神門·氣口 前後脈의 分辨) 第 1 章 心·小腸의 實虛 第 1 節 心의 實虛

【原 文】

心實¹⁾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隱實⁽¹⁾者는 手少陰經也²⁾니 痘苦閉⁽²⁾ 大便不利 腹滿 四肢重 身熱하고 苦胃脹⁽³⁾하니 刺三里³⁾⁽⁴⁾하

心虛⁴⁾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隱虛⁽⁵⁾者는 手少陰經也²⁾니 痘苦悸⁽⁶⁾恐不樂 心腹痛⁽⁷⁾ 難以言 心如寒狀恍惚⁽⁵⁾이라

【校 劍】

1) 心實 ; 『千金』 卷十三 「心虛實第二」에는 ‘心實熱’로 되어 있다. 다음에 오는 ‘臟腑實’의 條文도 이와 같다.

2) 手少陰經也 ; 底本에는 ‘手厥陰經也’로 되어 있는데 『千金』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이를 바꾼다.

3) 苦胃脹刺三里 ; 『千金』에는 없다.

4) 心虛 ; 『千金』에는 ‘心虛寒’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오는 ‘臟腑虛’의 條文도 이와 같다.

5) 狀恍惚 ; 『千金』에는 ‘恍惚’로 되어 있다.

24) “其鍼刺雖有補瀉之法, 予恐但有瀉而無補焉.”
上揭書; p.249

【註 釋】

- (1) 陰實(음실) ; 沈取하였을 때 脈이 堅實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 (2) 閉(폐) ; 大便閉.
- (3) 胃脹(위창) ; 脹滿의 하나로, 胃가 찬 기운을 받아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여 배가 그득하고 心下가 아프며 口臭가 나고 食慾이 不振하며 또한 배가 불러오기도 하는 병증.
- (4) 三里(삼리) ; 足陽明胃經의 穴로, 小腿의 前外側에 있는데 犢鼻穴에서 3寸 直下한 곳이며 脛骨의 外側으로부터 1橫指 부위이다.
- (5) 陰虛(음허) ; 沈取하였을 때 脈이 虛弱하고 힘이 없는 것이다.
- (6) 悸(계) ; 心悸.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하는 증상. * 悸 ; 心動. 두근거릴 계
- (7) 心腹痛(심복통) ; 心下와 腹部의 痛症이 겹한 증.

【國 譯】

心實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手少陰經이 實한 것이니, 大便을 보지 못하거나 大便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배가 脹滿하며 四肢가 무겁고 열이 나며 胃脹으로 괴로워하니 足三里를 刺針한다.

心虛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沈部位가 虛한 것은 手少陰經이 虚한 것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즐겁지 않으며 心腹이 아프고 말하기 힘들며 가슴이 시리고 정신이 불안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考 察】

底本에서 心實과 心虛 條文의 ‘左手寸口人迎以前脉 陰實者’와 ‘左手寸口人迎以前脉 陰虛者’에 ‘手厥陰經也’로 되어 있는데, 『千金』에는 ‘手少陰經也’로 되어 있고, 뒤의 心小腸俱實과 心小腸俱虛의 條文에는 ‘手少陰與太陽經俱實也’로 되어 있다. 본 章이 心 부위 脈의 虛實에 따른 痘證에 관한 條文이므로 ‘手少陰經’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前篇 第1章에는 ‘手少陰經’이 아닌 ‘手心主經’으로 나오는데 이는 左寸口에서의 陰陽絕·實脈에 따른 痘證을 치료하기 위하여 經絡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여기의 경우와는 다르다.

第 2 節 小腸의 實虛

【原 文】

小腸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陽實⁽¹⁾者는 手太陽經也니 痘苦身熱 來去¹⁾ 汗不出²⁾ 一作汗不出이라
心中煩⁽²⁾滿⁽³⁾ 身重 口中生瘡⁽³⁾이라

小腸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陽虛⁽⁴⁾者는 手太陽經也니 痘苦顱際⁽⁵⁾偏頭痛 耳頰⁽⁶⁾痛이라

【校 劍】

1) 來去 ; 底本에는 ‘熱來去’로 되어 있는데 『千金』 卷十四 「小腸虛實第二」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이를 바꾼다.

2) 汗不出 ; 底本에는 ‘汗出’로 되어 있는데 『千金』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이를 바꾼다.

3) 心中煩滿 ; 底本에는 ‘而煩心中滿’으로 되어 있는데 『千金』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이를 바

꾼다.

【註 釋】

- (1) 陽實(양실) ; 浮取하였을 때 脈이 堅實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 (2) 煩(번) : 心煩. 속에서 열이 나고 마음이 焦燥하며 답답한 증상.
- (3) 口中生瘡(구중생창) ; 口瘡. 입 안쪽으로 입술·뺨 부위의 粘膜에 원형 혹은 타원형에 淡黃色 혹은 灰白色의 작은 점이 하나 혹은 여러 개 발생하는 것인데, 별건 테두리가 있고 표면이 오목하게 패이며, 국소가 화끈거리고 아프며, 반복해서 발작한다.
- (4) 陽虛(양허) ; 浮取하였을 때 脈이 虛弱하고 힘이 없는 것이다.
- (5) 顱際(노제) ; 顱는 두개골을 의미하고, 顱際는 두개골에서 머리털이 난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 (6) 頰(협) ; 脣.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부터 턱 위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國 譯】

小腸實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手太陽經이 實한 것이니, 몸에 熱이 나서 往來하고 땀이 나면서 어떤 本에는 汗不出로 되어 있다. 가슴이 煩滿하며 몸이 무겁고 입안이 헉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小腸虛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 浮部位가 虛한 것은 手太陽經이 虚한 것이니, 顱際偏頭痛이나 耳頰痛으로 괴로워한다.

【考 察】

小腸實의 條文에 대해 『脈經』의 原文대로 하면 “몸에 熱이 나서 熱이 往來하고 땀이 나면서 心煩하고 가슴이 그득한 것으로 괴로워한다(病苦身熱, 热來去, 汗出而煩, 心中滿).”가 되고, 『千金』의 原文대로 하면 “身熱이 往來하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서 가슴이 煩滿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病苦身熱來去, 汗不出而心中煩滿).”가 된다. 그런데 心煩은 가슴속에 熱이 있는데 이것이 發散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脈經』의 원문대로 땀이 난다면 熱이 풀리게 되므로 心煩하지도 않고 가슴이 그득하게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땀이 나지 않으면서 心煩하게 되는 『千金』의 원문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第 3 節 心·小腸의 俱實·俱虛

【原 文】

心小腸俱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陰陽이 俱實者는 手少陰與太陽經¹⁾俱實也니 痘苦頭痛 身熱 大便難 心腹煩滿 不得臥하야 以胃氣⁽¹⁾不轉하야 水穀實⁽²⁾也니라

心小腸俱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脉에 陰陽이 俱虛者는 手少陰與太陽經¹⁾俱虛也니 痘苦洞泄⁽³⁾하고 苦寒⁽²⁾ 少氣⁽⁴⁾ 四肢寒⁽³⁾ 腸澼⁽⁵⁾⁽⁴⁾이라

【校 勘】

- 1) 手少陰與太陽經 ; 『千金』 卷十三 「心虛實第二」에는 ‘手少陰與巨陽經’으로 되어 있다.
- 2) 苦寒 ; 『千金』에는 ‘若寒’으로 되어 있다.

- 3) 四脈寒 ; 『千金』에는 '四肢厥'로 되어 있다.
 4) 痘苦洞泄 苦寒 少氣 四脈寒 腸澼 ; 『校釋』에는 '病苦寒 少氣 四肢厥 腸澼 洞泄'로 되어 있다.

【註 釋】

- (1) 胃氣(위기) ; 胃의 生理機能을 가리킨다.
 (2) 水穀實(수곡실) ; 水穀이 가득 차서 막힌다는 뜻이다. * 實 ; 滿也, 찰 실
 (3) 洞泄(통설) ; 泄瀉의 하나로 寒泄에 속한다.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소화되지 않은 것을 물 붓는 것처럼 심하게 설사하며 몸은 무겁고 배가 끓는 것이다. * 洞 ; 通也, 통할 통
 (4) 少氣(소기) : 호흡이 미약하고 짧으며 말소리에 힘이 없는 것.
 (5) 腸澼(장僻) ; 痢疾의 古名이며 滯下라고도 한다. '澼'이란 더럽고 끈적끈적하면서 미끈거리는 콧물이나 고름 같은 액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腸에서 배출되므로 腸澼이라 한다.

【國 譯】

心小腸俱實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 沈·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手少陰經과 手太陽經이 모두 實한 것이니, 頭痛, 身熱, 大便難, 心腹煩滿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니 胃氣가 잘 운행되지 못하여 水穀이 實하기 때문이다.

心小腸俱虛

원손 寸口人迎 이전의 脈에서 沈·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手少陰經과 手太陽經이 모두 虚한 것이니, 洞泄로 괴로워하고, 惡寒과 少氣, 四肢厥冷, 腸澼으로 괴로워한다.

第 2 章 肝·膽의 實虛

第 1 節 肝의 實虛

【原 文】

肝實

左手關上脉에 陰實者는 足厥陰經也니 痘苦心下堅滿⁽¹⁾ 常兩脅痛 自忿忿⁽²⁾如怒狀⁽³⁾이라

肝虛

左手關上脉에 陰虛者는 足厥陰經也니 痘苦脅下堅 寒熱 腹滿不欲飲食 腹脹⁽³⁾ 恬悒⁽⁴⁾不樂과 婦人の 月經不利와 腰腹痛이라

【校 勘】

- 1) 自忿忿如怒狀 ; 『千金』 卷十一 「肝虛實第二」에는 '息忿忿如怒狀'으로 되어 있다.

【註 釋】

- (1) 心下堅滿(심하견만) ; 心下의 부위가 膨滿하면서 근육이 긴장하여 만져보면 딩어리가 있고 아픈 곳이 고정되어 있으나 밀면 움직이는 것.
 (2) 忿忿(분분) ; 성내는 모양. * 忿 ; 忿怒, 노할 분
 (3) 腹脹(복창) : 腹部가 脹滿하여 불편한 증후.
 (4) 恤悒(읍읍) ;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편치 아니한 모양 * 恤 ; 憂也, 근심해 답답할 읍

【國 譯】

肝實

원손 關上의 脈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足厥

陰經이 實한 것인니, 心下가 堅滿하고 항상 양쪽 옆구리가 아프며 화가 난 모양처럼 스스로 분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肝虛

원손 關上의 脈에서沈部位가虛한 것은足厥陰經이虛한 것인니, 脇下가 단단하고 寒熱이往來하며 腹滿하여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배가 그득하여 답답하고 즐겁지 않은 것과婦人의 경우月經不利와 腰腹痛으로 괴로워한다.

第 2 節 膽의 實虛

【原 文】

膽實

左手關上脉에 陽實者는 足少陽經也니 痘苦腹中氣滿 飲食不下 咽乾 頭重痛¹⁾ 洒洒惡寒¹⁾ 脇痛이라

膽虛

左手關上脉에 陽虛者는 足少陽經也니 痘苦眩²⁾ 厥³⁾ 瘦⁴⁾ 足指不能搖⁵⁾ 瞳⁶⁾坐不能起 僵仆⁷⁾ 目黃 失精 瞳眩⁸⁾이라

【校 勘】

1) 頭重痛 ; 『千金』 卷第十二 「膽虛實第二」에는 '頭痛'으로 되어 있다.

2) 瞳坐不能起 ; 『千金』에는 '瞳不能起'로 되어 있다.

【註 釋】

(1) 洒洒惡寒(쇄쇄오한) ; 洒漸惡寒. 痘人이 惡風寒할 때 마치冷水를 몸에 뒤집어쓰거나 혹은

비를 맞아 흠뻑 젖은 感覺을 形容한 말이다. * 洒；寒慄貌, 으슬으슬 떨릴 쇄

(2) 眩(현) ; 目眩. 눈앞이 깜깜해지고 昏花가 보이는 증상.

(3) 厥(궐) ; 厥逆. 손발끝에서부터 차츰 싸늘해져 올라오는 증상.

(4) 瘦(위) : 瘦證, 瘦蹙. 四肢가軟弱無力한 것. 특히 下肢를 쓰지 못하고, 심하면 肌肉이 위축되는 병증.

(6) 搖 ; 動也, 움직일 요

(7) 瞳(벽) ; 瞳證이 다리에 생겨 밸이 마르고 허약하여 걸을 수 없는 것. * 瞳 ; 人不能行也, 잘 걸지 못할 벽

(8) 僵仆(강부) ; 갑작스럽게 쓰러져 뻣뻣해지는 것. * 僵；仆也, 옆드려질 강. 仆；僵也, 옆드려질 부

(9) 瞳眩(황황) ; 눈앞이 아물아물하여 잘 보이지 않는 것. * 瞳；目不明, 눈 어두울 黃

【國 譯】

膽實

원손 關上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足少陽經이 實한 것인니, 배가 그득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으며 목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으실으실 춥고 옆구리가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膽虛

원손 關上의 脈에서 浮部位가虛한 것은足少陽經이虛한 것인니, 눈앞이 어지럽고四肢가厥冷하며 瘦症으로 밸가락을 움직일 수 없고 瞳症으로 앉았다가 일어서질 못하며 갑자기 쓰러지고 눈이 노랗게 되며 精氣를 잃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國 譯】

第 3 節 肝·膽의 俱實·俱虛

【原 文】

肝膽俱實

左手關上脉에 陰陽이 俱實者는 足厥陰與少陽
經俱實也니 痘苦胃脹⁽¹⁾ 嘴逆⁽²⁾ 食不消라

肝膽俱虛

左手關上脉에 陰陽이 俱虛者는 足厥陰與少陽
經俱虛也니 痘苦恍惚⁽³⁾ 尸厥⁽⁴⁾不知人 妄見 少氣
不能言 時時自驚⁽⁵⁾이라

【校 勘】

1) 痘苦胃脹 ; 『繆本』에는 '病苦胃寒'으로 되어 있다.

2) 痘苦恍惚 ; 『千金』 卷第十一 「肝虛實第二」에는 '病如恍惚'로 되어 있다.

【註 釋】

(1) 胃脹(위창) ; 脹滿의 하나로, 胃가 찬 기운을 받아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여 배가 그득하고 心下가 아프며 口臭가 나고 食慾이 不振하며 또한 배가 불러오기도 하는 병증.

(2) 嘴逆(구역) ; 嘔症. 嘔吐할 때에 소리는 나면서 胃의 내용물을 나오지 않는 증상.

(3) 恍惚(황홀) ; 정신이 불안정하고 혼란하여 주관이 없는 것.

(4) 尸厥(시궐) ; 갑자기 정신을 잃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

(5) 驚 ; 駭也, 놀랄 경

肝膽俱實

원손 關上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足厥陰經과 足少陽經이 모두 實한 것 아니, 胃脹하고 嘔逆하며 음식이 소화 안 되는 것으로 痘로워한다.

肝膽俱虛

원손 關上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足厥陰經과 足少陽經이 모두 虛한 것 아니, 정신이 불안하고 尸厥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헛것을 보고 기운이 적어 말을 하지 못하며 때로 저절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痘로워한다.

第 3 章 腎·膀胱의 實虛

第 1 節 腎의 實虛

【原 文】

腎實

左手尺中神門⁽¹⁾以後脉에 陰實者는 足少陰經
也니 痘苦膀胱脹閉⁽²⁾ 少腹與腰脊相引痛이라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實者는 足少陰經
也니 痘苦舌燥 咽腫⁽³⁾ 心煩⁽⁴⁾ 暖乾⁽⁵⁾ 胸脇時痛 喘
欬汗出 小腹脹滿 腰背彊急⁽⁶⁾ 體重骨熱⁽⁷⁾ 小便赤
黃 好怒好忘 足下熱疼 四肢黑 耳聾⁽⁸⁾이라

腎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虛者는 足少陰經
也니 痘苦心中悶 下重⁽⁹⁾ 足腫不可以按地라

【校 問】

1) 『錢本』에는 이 條文이 없고 대신 “검토해 보면 앞뒤의 문장은 모두 한 개의 條文만 있어 腎實만 유독 나누어 두 개로 한 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상세히 살펴보면 이 條文은 본래 『千金』의 문장으로 林億이 校閱한 『千金方』에서 脈經을 인용한 것에는 단지 膀胱脹閉의 두 구절이 있으나 즉 뒷 條文은 校書者の 附錄인 것이다. 책을 베껴 쓴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原文으로 잘못 여겨 함께 간행한 것뿐이다. 이에 지금 삭제한다(檢前後文並止一條, 不應腎實獨分爲二, 詳此條本千金文, 林億校千金方, 引脈經, 祇有膀胱脹閉二句, 則後條乃校書者附錄, 傳寫已久, 誤以爲原文而并刊之耳. 今刪去).”라는 小註가 있다.

【註 釋】

- (1) 神門(신문) ; 兩尺의 앞 1分을 말한다²⁵⁾.
- (2) 膀胱脹閉(방광창폐) ; 膀胱脹. 脹滿의 하나로, 小腹이 그득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
- (3) 咽腫(인종) ; 咽喉腫痛. 喉關의 안쪽이나 바깥쪽이 붓고 아프며, 간혹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
- (4) 心煩(심번) : 속에서 열이 나고 마음이 焦燥하며 담담한 증상.
- (5) 噎乾(의건) ; 咽乾. * 噎 ; 咽也, 목구멍 익
- (6) 腰背僵急(요배강급) ; 腰部와 背部의 肌肉・筋脈이 아프고 땋기는 증상. * 僵 ; 屣硬, 시체 뻣뻣할 강
- (7) 骨熱(골열) ; 骨蒸, 骨蒸癆熱. 虛勞病으로 뺃속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症이며, 또한 骨은 深層이라는 뜻이고 蒸은 薫蒸이라는 뜻이다. 陰虛

25) “兩尺前一分, 名神門”

李 楠; 編註醫學入門,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91

潮熱의 热氣가 裏部에서 誘發해 나오므로 이렇게 부른다. 이러한 热型은 언제나 盗汗이 겸하며 肺癆病의 主證의 하나이다.

(8) 耳聾(이롱) ;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症狀, 즉 難聽을 말한다.

(9) 下重(하중) ; 양발이 무거운 것이다²⁶⁾.

【國 譯】

腎實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足少陰經의 實이니, 膀胱脹閉와 少腹과 腰脊이 서로 당기면서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足少陰經의 實이니, 舌燥와 咽腫, 心煩, 噎乾, 胸脇이 때때로 아픈 것, 喘咳汗出, 小腹脹滿, 腰背強急, 體重骨熱, 小便赤黃한 것과 잘 화내고 잘 잊으며 발바닥이 뜨겁고 아프며 四肢가 겸게 되고 耳聾으로 괴로워한다.

腎虛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沈部位가 虛한 것은 足少陰經의 虛이니, 가슴속이 답답하고 다리가 무거우며 발이 부어서 땅을 딛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考 察】

다른 條文은 한 개씩만 있는데 腎實만 두 개의 條文이 있는 것은 문장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錢本』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6) “下重, 此指兩足沈重.”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42

第 2 節 膀胱의 實虛

【原 文】

膀胱實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陽實者는 足太陽經也
니 痘苦逆滿⁽¹⁾ 腰中痛不可俛仰⁽²⁾ 勞⁽³⁾也라

膀胱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陽虛者는 足太陽經也
니 痘苦脚中筋急⁽⁴⁾ 腹中痛引腰背 不可屈伸 轉筋
⁽⁵⁾ 惡風 偏枯⁽⁶⁾ 腰痛 外踝後痛이라

【註 釋】

(1) 逆滿(역만) ; 氣逆과 脹滿을 말한다.²⁷⁾ 氣逆은 氣가 거슬러 올라 순조롭지 못하고, 脹滿은 腹部가 부어오르고 그득한 증상이다.

(2) 俛仰(면양) ; 屈伸. 머리를 치웠다 숙였다 함.

(3) 勞(노) ; 勞傷, 過勞로 인한 損傷이다.

(4) 筋急(근급) ; 筋脈이 땅기고 뻣뻣하여 屈伸이 순조롭지 못한 증상.

(5) 轉筋(전근) ; 抽筋. 肢體의 筋脈이 땅기면서 痫攣이 일어나며, 마치 비트는 것처럼 아픈 증상. 보통 쥐가 난다고 한다.

(6) 偏枯(편고) ; 偏風, 偏虛, 半身不遂. 한쪽肢體가 마비되어 쓰지 못하고 간후 疼痛을 수반하며, 오래되면 患側肢體의 肌肉이 야위고 정서의 이상 변화가 오는 것이다.

27) “病患氣逆脹滿.”

福州市人民醫院 ;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67

【國 譯】

膀胱實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足太陽經이 實한 것이니, 氣逆과 脹滿, 腰痛으로 屈伸할 수 없는 것으로 괴로우니 이는 勞傷으로 인한 것이다.

膀胱虛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浮部位가 虛한 것은 足太陽經이 虛한 것이니, 다리의 근육이 당기고 腹痛으로 腰背까지 당겨서 屈伸할 수 없으며 轉筋, 惡風, 偏枯, 腰痛, 足外踝 뒤쪽이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3 節 腎·膀胱의 俱實·俱虛

【原 文】

腎膀胱俱實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陽○俱實者는 足少陰與太陽經俱實也니 痘苦脊彊⁽¹⁾反折⁽²⁾ 戴眼⁽³⁾ 氣上擔心⁽⁴⁾ 脊痛不能自反側이라

腎膀胱俱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陽○俱虛者는 足少陰與太陽經俱虛也니 痘苦小便利⁽⁵⁾ 心痛背寒⁽⁶⁾ 時時少腹滿이라

【註 釋】

(1) 脊彊(척강) ; 脊背強. 脊椎骨 부위의 筋脈・肌肉이 땅겨서 몸을 앞으로 숙이지 못하는 증상.

(2) 反折(반절) ; 角弓反張. 등이 뒤로 휘어진 증상.

(3) 戴眼(대안) ; 눈을 위로 치켜 뜨고 目睛이

돌아가지 않는 것.

(4) 搶心(창심) ; 衝心. 痘氣가 가슴으로 치미는 것. * 搶 ; 猶刺, 찌를 창

(5) 小便利(소변리) ; 『校釋』은 '소변을 많이 보는 것'으로 語譯했다.²⁸⁾

(6) 背寒(배한) ; 背惡寒. 등에서 寒氣가 느껴지는 것.

【國 譯】

腎膀胱俱實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足少陰經과 足太陽經이 모두 實한 것이니, 角弓反張과 戴眼이 발생하고 氣가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며 脊椎가 아파서 몸을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腎膀胱俱虛

원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足少陰經과 足太陽經이 모두 虚한 것이니, 小便을 많이 보고 가슴이 아프며 등에만 惡寒이 발생하고 때로 少腹이 그득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4 章 肺·大腸의 實虛

第 1 節 肺의 實虛

【原 文】

肺實

右手寸口氣口⁽¹⁾以前脉에 陰實者는 手太陰經也니 痘苦肺脹⁽²⁾ 汗出若露 上氣⁽³⁾喘逆⁽⁴⁾ 咽中塞如欲嘔狀이라

28) “小便多.”

上揭書; p.49

肺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脉에 陰虛者는 手太陰經也니 痘苦少氣不足以息 喘乾不朝⁽⁵⁾津液⁽¹⁾이라

【校 勘】

1) 喘乾不朝津液 ; 『千金』 卷第十七 「肺虛實第二」에는 '喘乾不津液'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氣口(기구) ; 오른손 關部의 앞 1分을 말한다.²⁹⁾

(2) 肺脹(폐창) ;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차고 결분속이 아픈 것.

(3) 上氣(상기) ; 呼氣가 많고 吸氣가 적어 호흡이 빠른 것.

(4) 喘逆(천역) ; 喘證. 숨이 몹시 차서 콧방을 벌름거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반드시 눕지 못하는 것이다.

(5) 朝 ; 聚會, 조회할 조

【國 譯】

肺實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手太陰經이 實한 것이니, 肺脹과 땀이 이슬처럼 나오며 上氣喘逆하고 咽部가 막혀서 마치 토했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肺虛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沈部位가虛한 것은 手太陰經이虛한 것이니, 少氣로 힘없이

29) “氣口, 右手關前一分.”

李 楠; 編註醫學入門,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92

숨을 쉬고 津液이 적셔 주지 못하여 목이 마르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2 節 大腸의 實虛

【原 文】

大腸實

右手寸口氣口以前脉에 陽實者는 手陽明經也
니 痘苦腹滿 善喘欬 面赤身熱 喉咽 一本엔 作咽
喉斗 中如核狀이라

大腸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脉에 陽虛者는 手陽明經也
니 痘苦胸中喘 腸鳴⁽¹⁾ 虛渴⁽²⁾ 脣口乾⁽¹⁾ 目急⁽³⁾ 善
驚 泄白⁽⁴⁾이라

【校 勘】

1) 脣口乾 ; 『千金』 卷十八「大腸虛實第二」에는 ‘脣乾’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腸鳴(장명) ; 腹鳴.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끓는 소리가 나는 증상.

(2) 虛渴(허갈) ; 虛損으로 인해 渴症이 발생하는 것.

(3) 目急(목급) ; 目系가 땅기는 것이다. ‘目系’는 眼球가 안쪽으로 腦와 연결된 脈絡이다³⁰⁾.

(4) 泄白(설백) ; 大便에 白色의 粘液이 함유된 것³¹⁾.

30) “目急，即目系急。‘目系’為眼球內連于腦的脈絡。”
福州市人民醫院；脈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
1984, p.62

31) “泄白，大便含白色粘液。”

【國 譯】

大腸實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手陽明經이 實한 것이니, 배가 그득하고 咳嗽를 자주 하며 얼굴이 純하고 몸에 열이 나며 喉咽에 어떤 本에는 咽喉로 되어 있다. 씨앗이 결린 것처럼 답답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大腸虛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 浮部位가 虛한 것은 手陽明經이 虚한 것이니, 가슴에서 담이 끓고 천식을 하며 뱃속에서 소리가 나며 虛渴하고 口脣이 마르며 目系가 땅기고 자주 놀래며 白色의 措액이 섞인 便을 보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3 節 肺·大腸의 俱實·俱虛

【原 文】

肺大腸俱實

右手寸口氣口以前脉에 陰陽이 俱實者는 手太陰與陽明經俱實也니 痘苦頭痛目眩 驚狂⁽¹⁾ 喉痺⁽²⁾痛 手臂捲⁽³⁾ 脣吻不收⁽⁴⁾라

肺大腸俱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脉에 陰陽이 俱虛者는 手太陰與陽明經俱虛也니 痘苦耳鳴⁽⁵⁾嘈嘈⁽⁶⁾ 時妄見光明 情中不樂 或如恐怖라

【校 勘】

1) 『校釋』과 『中醫藥大』에는 이 다음에 ‘捲, 一作倦, 一作蹠’이라는 小註가 있다.

上揭書；面同

【註 釋】

- (1) 驚狂(경광) ; 갑작스런 놀람으로 인해 狂疾이 발생한 것.
- (2) 喉痺(후비) ; 咽喉가 별겋게 붓고 아프며 막힌 감이 있는 咽喉病.
- (3) 摟 ; 收也, 거들 권
- (4) 脣吻不收(순문불수) ; 입술이 늘어져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증상. * 吻 ; 口邊, 입술 문
- (5) 耳鳴(이명) ; 귓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
- (6) 噪嘈(조조) ; 시끄러운 모양. * 噪 ; 喧也, 지껄일 조

【國 譯】

肺大腸俱實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이 모두 實한 것이니,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어지러우며 驚狂하고 喉痺痛이 생기며 손과 팔뚝이 오그라지고 입술이 늘어져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肺大腸俱虛

오른손 寸口氣口 이전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이 모두 虚한 것이니, 耳鳴으로 시끄럽고 때로 헛것이 보이며 마음이 즐겁지 않고 혹 콩포증이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괴로워한다.

【考 察】

本篇에서 左手寸口를 人迎으로, 右手寸口를 氣口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素問』에 人迎은 結喉의 옆에 있는 頸動脈을, 氣口

는 양손의 橋骨動脈을 가리키는데 王叔和부터 左人迎 右寸口의 說이 나와 후세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 이를 張景岳은 『類經』 卷六 「脈色類·關格」에 “왕숙화 이후부터 모두 分辨하지 못하고 鍾출으로 관격을 말하였고 또 左側을 인영이라 하고 오른쪽을 기구라 하여 후세를 혼란시켜 음양표리의 큰 뜻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였다(繼自王叔和以後, 俱莫能辨, 悉以尺寸言關格, 而且云左爲人迎, 右爲氣口, 以致後世惑亂, 遂并陰陽表裏大義盡皆失之).”하면서 매우 비판하였다. 따라서 左人迎 右寸口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第 5 章 脾·胃의 實虛

第 1 節 脾의 實虛

【原 文】

脾實

右手關上脉에 陰實者는 足太陰經也니 痘苦足寒脰⁽¹⁾熱 腹脹滿⁽²⁾ 煩擾⁽³⁾不得臥斗

脾虛

右手關上脉에 陰虛者는 足太陰經也니 痘苦泄注⁽⁴⁾ 腹滿氣逆 霍亂⁽⁵⁾嘔吐 黃疸⁽⁶⁾ 心煩不得臥 腸鳴이라

【註 釋】

- (1) 脰 ; 脾也, 종아리 경
- (2) 腹脹滿(복창만) ; 腹部가 脹滿하여 불편한 증후.
- (3) 煩擾(번요) : 번거롭고 소란함. * 摶 ; 煩也, 번거할 요
- (4) 泄注(설주) ; 泄瀉下注.
- (5) 霍亂(곽란) ; 嘔吐와 泄瀉가 동시에 발생하는 痘證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격렬한 吐瀉와 心腹絞痛을 가리킨다.

(6) 黃疸(황달) ; 皮膚黃 · 目黃 · 小便黃이 主證이 되는 질환.

【國 譯】

脾實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 沈部位가 實한 것은 足太陰經이 實한 것이니, 밭은 차가운데 종아리는 뜨겁고 腹部가 脹滿하며 번거롭고 요란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脾虛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沈部位가 虛한 것은 足太陰經이 虛한 것이니, 泄瀉하고 배가 그득하면서 氣가 上逆하며 霍亂嘔吐와 黃疸이 생기고 心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腸鳴으로 괴로워한다.

第 2 節 胃의 實虛

【原 文】

胃實

右手關上脉이 陽實者는 足陽明經也니 痘苦腹中堅痛而熱¹⁾ 千金엔 作病苦頭痛이라 汗不出如溫瘡⁽¹⁾⁽²⁾ 脣口乾 善噦⁽²⁾ 乳癰⁽³⁾ 缺盆⁽⁴⁾腋下腫痛이라

胃虛³⁾

右手關上脉이 陽虛者는 足陽明經也니 痘苦脛寒不得臥 惡寒⁴⁾洒洒 目急 腹中痛 虛鳴 外臺엔 作耳虛鳴이라 時寒時熱 脣口乾 面目浮腫이라

【校 劍】

1) 痘苦腹中堅痛而熱 ; 『千金』 卷十六 「胃虛實第二」에는 '病苦頭痛'으로 되어 있다.

2) 汗不出如溫瘡 ; 『黃本』과 『周本』에는 '살펴보면 여섯 자는 敬本에 역시 旁注로 되어 있다(案, 六字居敬本亦旁注).'라는 小字注가 있다.

3) 胃虛 ; 『千金』에는 '胃虛冷'으로 되어 있다.

4) 惡寒 ; 『千金』에는 '惡風寒'으로 되어 있다.

【註 釋】

(1) 溫瘡(온학) ; 평소에 热邪가 잠복해 있는 테다 瘡邪를 받아들이거나,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邪氣가 있는 테 주로 여름철에 暑熱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瘡疾.

(2) 噦 ; 氣逆聲, 땀꾹질할 일

(3) 乳癰(유옹) ; 乳房部位에 생기는 癰을 '乳癰'이라 統稱하며, 急性乳腺炎이다. 乳房이 붓고 熱痛이 그치지 않는다.

(4) 缺盆(결분) ; 足陽明胃經의 穴로, 鎌骨 위의 오목한 곳에 있다.

(5) 虛鳴(허명) ; 耳鳴 중 虛證으로, 손으로 눌렀을 때 귀가 울리지 않거나 경감되는 것.

【國 譯】

胃實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足陽明經이 實한 것이니, 벗속이 단단하면서 아프고 열이 나고 『千金』에는 '病苦頭痛'으로 되어 있다. 溫瘡처럼 땀이 나오지 않으며 입술이 마르고 자주 땀꾹질하고 乳癰이 발생하며 缺盆 부위와 겨드랑이 아래가 붓고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胃虛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 浮部位가 虛한 것은 足陽明經이 虛한 것이니, 종아리가 차서 잠이 오지

않고 으실으실 추우며 目系가 땅기고 뱃속이 아프며 虛鳴이 나고 『外臺秘要』에는 '耳虛鳴'으로 되어 있다. 때로 추웠다가 때로 더웠다 하며 입술이 마르고 面目이 붓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3 節 脾·胃의 俱實·俱虛

【原 文】

脾胃俱實

右手關上脉에 陰陽이 俱實者는 足太陰與陽明經俱實也니 痘苦脾脹⁽¹⁾ 腹堅 搶脅下痛⁽¹⁾하고 胃氣不轉하야 大便難거나 時反泄利하고 腹中痛이라 上衝肺肝하야 動五藏하면 立⁽²⁾喘鳴⁽³⁾⁽²⁾ 多驚身熱汗不出 喉痺 精少⁽⁴⁾라

脾胃俱虛

右手關上脉에 陰陽이 俱虛者는 足太陰與陽明經俱虛也니 痘苦胃中如空狀 少氣不足以息 四逆寒⁽⁵⁾ 泄注不已라

【校勘】

1) 搶脅下痛 ; 『黃本』과 『周本』에는 모두 '痛脅下痛'으로 되어 있다.

2) 立喘鳴 ; 『黃本』과 『周本』에는 모두 '並喘鳴'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脾脹(비창) ; 脾에 寒氣가 鬱結되어 생기는데, 嘔逆을 자주 하고 四肢가 뜨거우면서 쓰기 불편하며 몸이 무겁고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는 병증.

(2) 立 ; 速意, 곧 입

(3) 喘鳴(천명) ; 喘息이 심하여, 목에서 痰聲을 소리가 나는 증상.

(4) 精少(정소) ; 精液이 稀少한 것.

(5) 四逆寒(사역한) ; 四肢厥冷. 손발끝에서부터 차츰 싸늘해져 올라오는 증상.

【國譯】

脾胃俱實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足太陰經과 足陽明經이 모두 實한 것이니, 脾脹하고 배가 단단해지며 脇下가 치밀어 오르듯 아프고 胃氣가 잘 운행되지 않아서 大便보기가 힘들거나 때로 반대로 泄瀉를 하며 배가 아픈 것으로 괴로워한다. 脾胃의 邪氣가 肺肝으로 침입해서 五臟을 요동시키면 갑자기 喘鳴하고 잘 놀래며 몸에 열이 나는데 땀은 나지 않고 喉痺과 精少가 발생한다.

脾胃俱虛

오른손 關上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足太陰經과 足陽明經이 모두 虛한 것이니, 胃속이 텅 빈 것 같고 少氣로 힘없이 숨을 쉬고 四肢가 厥冷하며 심한 泄瀉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6 章 腎·膀胱의 實虛

第 1 節 腎의 實虛

【原 文】

腎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實者는 足少陰經也니 痘苦痺⁽¹⁾ 身熱 心痛⁽²⁾ 脊脅相引痛 足逆⁽³⁾ 热煩⁽⁴⁾이라

腎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陰虛者는 足少陰經也니 痘苦足脛小弱 惡風寒과 脉代絕時不至하고 足

寒 上重下輕 行不可以按地¹⁾ 少腹脹滿 上擔胸脅痛引肋下²⁾라

【校勘】

1) 行不可以按地；『千金』 卷十九「腎虛實第二」에는 ‘行不可按地’로 되어 있다.

2) 上擔胸脅痛引肋下；『周本』과 『千金』에는 ‘上擔胸痛引脇下’로 되어 있다.

【註釋】

(1) 痢(비)；風·寒·濕邪가 經絡에 침범하여 氣血의 흐름을 가로막음으로 인해 關節과 肌肉에 痠痛·拘急 등이 발생하는 질병.

(2) 心痛(심통)；胸腔부疼痛의 총칭.

(3) 足逆(족역)；『校釋』에는 ‘足逆冷’으로 譯하였다.³²⁾

(4) 烦煩(열번)；煩熱. 가슴이 열이 나고 답답한 증상.

【國譯】

腎實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沈部位가 實한 것은 足少陰經이 實한 것이니, 瘰症이 있고 몸에 열이 나며 가슴이 아프고 脊脇이 서로 당기면서 아프며 다리가 頗冷하고 煩熱하는 것으로 痹워한다.

腎虛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沈部位가 虛한 것은 足少陰經이 虚한 것이니, 종아리가 가늘

32) “兩足逆冷.”
上揭書; p.67

어지면서 약하고 惡風寒하며 結代脈이 나타나서 때로 당도하지 않고 다리가 차가우며 上體는 무거우나 下體는 가벼워서 걸을 때 땅을 밟지 못하고 少腹이 脹滿하며 위로 胸脇까지 치밀어 올라 肋骨 아래까지 당기면서 아픈 것으로 痹워한다.

第 2 節 膀胱의 實虛

【原文】

膀胱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陽實者는 足太陽經也
니 痘苦轉胞⁽¹⁾不得小便⁽¹⁾ 頭眩痛 煩滿 脊背彊⁽¹⁾라

膀胱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陽虛者는 足太陽經也
니 痘苦肌肉振動 脚中筋急 耳聾忽忽⁽²⁾不聞 惡風
颺颺⁽³⁾作聲이라

【校勘】

1) 痘苦轉胞不得小便；『千金』 卷第二十「膀胱虛實第二」‘病苦胞轉不得小便’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轉胞(전포)；轉脬, 胞轉. 臍下가 땅기고 아프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중으로, 소변을 자주 보나 시원하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고, 매번 排尿하고자 할 때에는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대변 또한 급히 자주 보려 하나 나오지 않아 마치 痢疾과 같으나 痢疾은 아니며, 반드시 臍下来를 손으로 눌러야 소변을 볼 수 있고, 심하면 이로 인하여 腹脹과 浮腫이 생긴다.

(2) 忽忽(흘흘) ; 忽然. 갑자기.

(3) 颤颶(수수) ; 바람이 부는 소리. * 颤 ; 風聲,
바람소리 수

【國 譯】

膀胱實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浮部位가 實한 것은 足太陽經이 實한 것이니, 轉胞症으로 小便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면서 답답하고 脊背가 땃畋한 것으로 괴로워한다.

膀胱虛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浮部位가 虛한 것은 足太陽經이 虚한 것이니, 肌肉이 떨리고 다리의 근육이 땅기며 귀가 막혀서 갑자기 들을 수가 없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穎어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第 3 節 腎·膀胱의 俱實·俱虛

【原 文】

腎膀胱俱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隅陽이 俱實者는 足少陰與太陽經俱實也니 痘苦癲疾⁽¹⁾ 頭重與目相引痛厥 欲起走⁽¹⁾ 反眼⁽²⁾ 大風⁽³⁾ 多汗이라

腎膀胱俱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脉에 隅陽이 俱虛者는 足少陰與太陽經俱虛也니 痘苦心痛 若下重不自收 簾反出⁽⁴⁾ 時時苦洞泄 寒中泄⁽²⁾ 腎心⁽⁷⁾俱痛이라
一說에 云 腎有左右니 膀胱無二하니 今用當以左腎으로 合膀胱하고 右腎으로 合三焦⁽³⁾라하니 라

【校 勘】

1) 欲起走 ; 『千金』 卷十九 「腎虛實第二」에는 '欲走'로 되어 있다.

2) 寒中泄 ; 『千金』에는 '寒中'으로 되어 있다.

3) 一說云 ~ 右腎合三焦 ; 『錢本』과 『周本』에는 이 26자가 모두 小字註로 되어 있다.

【註 釋】

(1) 癲疾 ; 癲證. 精神異常이 생긴 병증으로, 우울하고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며 웃거나 울기도 하고 때로 노래부르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또한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외치며 물불을 가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反眼(반안) ; 戴眼.

(3) 大風(대풍) ; 麻風을 말하며, 癲大風 또는 大麻風이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환부가 마비되어 무감각하고 紅斑이 발생하며, 뒤이어 붓고 진무르지만 化膿하지는 않는다. 오래되면 전신의 肌膚에 퍼져 눈썹이 빠지고 눈이 손상되며 코가 주저앉고 입술이 갈라지며 발바닥에 穿孔이 생기고 진무르는 등의 重症이 발생한다.

(4) 簾反出(찬반출) ; '簾'은 會陰部이다³³⁾. 따라서 '簾反出'은 肛門이 重墜하여 會陰部가 뒤집어 빠져 나오는 감각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³⁴⁾.

(5) 腎心(신심) ; 腎은 腰部를 말하고, 心은 胸部를 말한다.

33) “‘簾’作‘會陰部’解.”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67

34) “‘簾反出’, 指肛門重墜, 以致會陰部有翻出感.”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49

【國 譯】

腎膀胱俱實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 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實한 것은 足少陰經과 足太陽經이 모두 實한 것이니, 巍症이 생기고 머리가 무겁고 눈과 서로 당기면서 아프며 내 달리고자 하고 눈을 치켜 뜨며 大麻風이 생기고 땀이 많이 나는 것으로 畏로워한다.

腎膀胱俱虛

오른손 尺中神門 이후의 脈에서沈部位와 浮部位가 모두 虛한 것은 足少陰經과 足太陽經이 모두 虛한 것이니, 가슴이 아프고 아래가 무지근한데 스스로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會陰部가 뒤집혀 나오고 때때로 寒邪의 침범으로 洞泄이 나오며 허리와 가슴이 모두 아픈 것으로 畏로워한다.

一說에 “腎은 左右가 있는데, 膀胱은 두 개가 아니니, 이제 左腎을 膀胱에 배합하고 右腎을 三焦에 배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考 察】

第一篇과 二篇의 脈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臟腑	脈	病 證
心	虛 左手關前寸口陰絕者, 無心脈也.	苦心下毒痛, 掌中熱, 時時善嘔, 口中傷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虛者, 手厥陰經也.	病苦悸恐不樂, 心腹痛, 難以言, 心如寒, 狀恍惚.
	實 左手關前寸口陰實者, 心實也.	苦心下有水氣, 憂恚發之.
小腸	虛 左手關前寸口陽絕者, 無少腸脈也.	病苦閉, 大便不利, 腹滿, 四肢重, 身熱, 苦胃脹.
	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陽虛者, 手太陽經也	苦臍痺, 小腹中有疝瘕, 王月卽冷上擔心.
	實 左手關前寸口陽實者, 小腸實也.	病苦顱際偏頭痛, 耳頰痛.
肝	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陽實者, 手太陽經也	苦心下急痺, 小腸有熱, 小便赤黃.
	虛 左手關上陰絕者, 無肝脈也.	病苦身熱, 热來去, 汗出而煩, 心中滿 身重, 口中生瘡.
	虛 左手關上脈陰虛者, 足厥陰經也.	苦癃, 遺溺, 難言, 脫下有邪氣, 善吐, 痘苦腸下堅, 寒熱, 腹滿, 不欲飲食 腹脹 恬悞不樂 婦人月經不利 腰腹痛.
實	實 左手關上陰實者, 肝實也.	苦肉中痛, 動善轉筋.
	實 左手關上脈陰實者, 足厥陰經也.	病苦心下堅滿, 常兩脹痛, 自忿忿如怒狀.

		脈	病 證
膽	虛	左手關上陽絕者，無膽脈也。	苦膝疼，口中苦，昧目，善畏，如見鬼狀，多驚少力。
		左手關上脈陽虛者，足少陽經也	病苦眩厥，痿，足指不能搖，躊躇，坐不能起，僵仆，目黃，失精，眴眴。
	實	左手關上陽實者，膽實也。	苦腹中實不安，身軀習習也。
		左手關上脈陽實者，足少陽經也。	病苦腹中氣滿，飲食不下，咽乾，頭重痛，洒洒惡寒，脇痛。
腎	虛	左手關後尺中陰絕者，無腎脈也。	苦足下熱，兩髀裏急，精氣竭少，勞倦所致。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者，	足少陰經也。病苦心中悶，下重，足腫不可以按地
	實	左手關後尺中陰實者，腎實也。	苦恍惚健忘，目視眴眴，耳聾悵悵，善鳴。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足少陰經也	病苦膀胱脹閉，少腹與腰脊相引痛。 病苦舌燥，咽腫，心煩，嗌乾，胸脇時痛，喘咳汗出，小腹脹滿，腰背強急，體重骨熱，小便赤黃，好怒好忘，足下熱疼，四肢黑，耳聾。
膀胱	虛	左手關後尺中陽絕者，無膀胱脈也。	苦逆冷，婦人月使不調，王月則閉，男子失精，尿有餘瀝。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陽虛者，足太陽經也。	病苦脚中筋急，腹中痛引腰背，不可屈伸 轉筋 惡風偏枯 腰痛 外踝後痛。
	實	左手關後尺中陽實者，膀胱實也。	苦逆冷，腸下有邪氣，相引痛。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陽實者，足太陽經也。	病苦逆滿，腰中痛不可俛仰，勞也。
肺	虛	右手關前寸口陰絕者，無肺脈也。	苦短氣欬逆，喉中塞，噫逆。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虛者，手太陰經也。	病苦少氣不足以息，嗌乾不朝津液。
	實	右手關前寸口陰實者，肺實也。	苦少氣，胸中滿，彭彭如肩相引。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實者，手太陰經也。	病苦肺脹，汗出若露，上氣喘逆，咽中塞，如欲嘔狀。
大腸	虛	右手關前寸口陽絕者，無大腸脈也。	苦少氣，心下有水氣，立秋節即咳。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陽虛者，手陽明經也。	病苦胸中喘，腸鳴，虛渴，脣口乾，目急，善驚，泄白。
	實	右手關前寸口陽實者，大腸實也。	苦腸中切痛，如錐刀所刺，無休息時。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陽實者，手陽明經也。	病苦腹滿，善喘咳，面赤身熱，喉咽中如核狀。
脾	虛	右手關上陰絕者，無脾脈也。	苦少氣下利，腹滿身重，四肢不欲動，善嘔
		右手關上脈陰虛者，足太陰經也。	病苦泄注，腹滿氣逆，霍亂嘔吐，黃疸，心煩不得臥，腸鳴。
	實	右手關上陰實者，脾實也。	苦腸中伏伏如堅狀，大便難。
		右手關上脈陰實者，足太陰經也。	病苦足寒，脛熱，腹脹滿煩擾不得臥。

		脈	病 證
胃	虛	右手關上陽絕者，此無胃脈也。	苦吞酸，頭痛，胃中有冷。
		右手關上脈陽虛者，足陽明經也。	病苦脛寒不得臥，惡寒酒洒，目急，腹中痛，虛鳴，時寒時熱，脣口乾，面目浮腫。
	實	右手關上陽實者，胃實也。	苦腸中伏伏，不思飲物，得食不能消。
		右手關上脈陽實者，足陽明經也。	病苦腹中堅痛而熱，汗不出如溫瘡，脣口乾，善嘔，乳癰，缺盆腋下腫痛。
腎	虛	右手關後尺中陰絕者，無腎脈也。	苦足逆冷上搶，胸痛，夢入水見鬼，善厭寐，黑色物來掩人上。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者，足少陰經也。	病苦足脛小弱，惡風寒，脈代絕，時不至，足寒，上重下輕，行不可以按地，少腹脹滿，上搶胸痛引肋下。
	實	右手關後尺中陰實者，腎實也。	苦骨疼，腰脊痛，內寒熱。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足少陰經也。	病苦痺，身熱，心痛，脊脇相引痛，足逆，熱煩。
膀胱	虛	右手關後尺中陽絕者，無子戶脈也。	苦足逆寒，絕產，帶下，無子，陰中寒。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陽虛者，足太陽經也。	病苦肌肉振動，腳中筋急，耳聾，忽忽不聞，惡風颼颼作聲。
	實	右手關後尺中陽實者，膀胱實也。	苦小腹滿，引腰痛。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陽實者，足太陽經也。	病苦轉胞，不得小便，頭眩痛，煩滿，脊背強。

參考文獻

- 何大任 校;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 陳欽銘; 脈經新解,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6.
- 李家庚 等; 脈經精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 蔣力生 校注; 脈經,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 張琨 等校; 脈經,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 吳承玉 等注; 脈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 京, 1999.
- 王叔和;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 陳夢電 等編; 王叔和脈經, 大成文化社 影印, 서울, 1986.
- 王叔和; 脈經, 大孚書局, 臺南.
- 劉更生 等點校;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6.
- 陵耀星 主編;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 滑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臺北, 1982.
- 朴 炳; 診斷學權輿, 大星醫學社, 서울, 2000.
- 朴 炳; 國譯奇經八脈考, 大星文化社, 서울, 1992.
- 朴 炳; 國譯脈學輯要·脈語, 大成文化社, 서울, 1997.
- 羅慶燦; 王叔和『脈經』의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19.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20. 李 楊; 編註醫學入門,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9.

參考辭典

1.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官, 香港, 1987.
2. 張三植; 漢韓大辭典, 教育出版公社, 서울, 1997.
3. 한상하; 漢文大辭典, 京人文化社, 서울, 1981.
4. 金赫濟 等; 漢韓明文大玉篇, 明文堂, 서울, 1992.
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9.
6. 謝 觀; 中國醫學大辭典, 麗江出版社, 서울, 2001.
7.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2
8.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0.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까치글방, 서울, 1997.
10. 江克明·包明蕙; 簡明方劑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9.